

여호수아(5) 여리고 전투

■ 본문

수 6:1-21

■ 시작 찬송가

545장(통 344장)

■ 헌금 찬송가

357장(통 397장)

▶ '나아가라'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건너가라'라는 단어이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한다.

(2018.04.29. 주일찬양예배)

▶ 여호수아의 패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이스라엘이 순종함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

이스라엘의 정체성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하는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 했던 사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의 뜻을 좇는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 전투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투 중에서도 성경이 여리고 전투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고 가장 처음으로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싸우는 첫 번째 장소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뢰와 순종으로 싸우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수 6:1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1)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가리켜 이미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전술이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소리를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우습고 어리석은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수 6:2-5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옛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할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말도 안 되는 전술은 지식이나 힘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뢰와 순종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을 불러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의 순종이 아닙니다. 일곱 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잡고 불며 여호와께의 궤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그 무리의 앞뒤에 서서 침묵으로 행진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함께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수 6:6-7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께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께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시니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첫 전투는 중요한 패턴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술이 아니라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은 이 전투가 바로 믿음으로 승리한 전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전쟁,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히 11:30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2) 외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렬을 이루어 여리고성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는 주목해서 보아야 할 행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시를 향하여, 하나님을 혐오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들을 향하여 나팔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먼저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용기를 갖고 힘을 내어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수 6:8-9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언약케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을 명하십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똑똑해서, 작전을 잘 짜서 이기는 전쟁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이야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침묵은 승리의 비결이 아닙니다. 진짜 승리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외쳤습니다.

수 6:10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수 6:16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할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어떠한 승리의 징조도 받지 못했습니다. 벽에 금이 가거나 떨어지는 벽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는 여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할 때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리고 전투는 끝까지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매일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되 끝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무 변화도 없지만 순종하는 그 6일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며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 외칠 때를 만나게 되며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 6:20(상)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이스라엘은 순종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가 그 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업신여기는 이들과 맞섰습니 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나안 온 땅에도 퍼져서 누구라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무엇과 맞서며 어떻게 맞서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맞서야 할 것에 분명하게 맞서며, 품어야 할 형제를 용서와 사랑으로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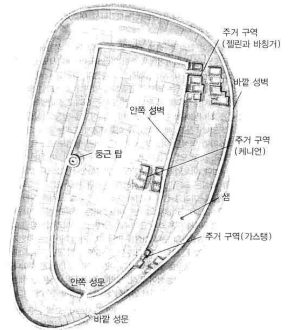
오늘의 한마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순종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

▶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산 도시 중 가장 오래된 도시이다. 1.5미터 너비의 견고한 성벽이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였다. 성문을 닫고 들어간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안에 안전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무너뜨리셨다.

▶ 단단한 공간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이 소위 말하는 단단한 공간들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참으로 단단한 공간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① 반석

(시 62:2, 시 18:2, 마 7:24)

② 요새

(시 9:9, 시 144:2)

③ 피난처

(시 14:6, 욥 3:16)

(2022.11.27. 주일맞예배)